

# 교회소식

교회세운날 2017.6.11

2022-52

12월 25일 (성탄절)

1.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성탄절입니다. 예전 색깔은 흰색입니다.
2. 다하나교회에 처음 오신 분과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예배 후에 교육부의 성탄 발표가 있습니다. 행사 후 간단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밥 과 샌디위치
4. 다음 주일 예배는 온가족 예배와 함께 성찬식이 있습니다.
5. 2023년 교회 달력을 안 받아 가신 분들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6.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27일 : 최서희 자매

29일: 노한 형제

## \*다음주 예배봉사자

- 기도: 이건영 집사 / 번역: 이예슬 집사

1월 안내 및 봉사: 툰드라의 갯잎 목장

## \*교회 향후 일정

- 부장단회의 : 1월 8일 주일 예배 후 4시 30분 @ 도서관

# 다하나교회

*One Heart Korean Church*



하나님을 만나고 형제 자매와 연결되어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다하나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예 배 : 매주 주일 오후 3시

수요기도회 : 매주 수요일 Zoom으로 오후 8시

3401 SALEM RD SW, ROCHESTER, MN 55902

Web : <https://mnrochesteroneheartchurch.com>

213-357-7614

# 예 배 순 서

인도자: 김경헌 목사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 록 2:10-12 ———— 인도자

신앙고백 ———— 다같이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기도 ———— 전미영 집사

주일학교 이동 ———— 주일학교 학생과 교사

찬송 ———— 123장 저 들 밖에 ———— 다같이

성경봉독 ———— 누가복음 2:36-38 ———— 인도자

설교 ———— 주님 마중 ———— 김경헌 목사

봉헌찬송 ———— 317장 내주예수 주신 은혜(1,5절) ———— 다같이

봉헌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찬양 ————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 다같이

축도 ———— 김경헌 목사

# 목회 칼럼 / 함께 라면

지난 주 설교를 통해 “함께 가면 험한 길도 즐겁다”라는 말씀을 나눴었죠. 설교를 한 지 딱 닷새가 지나고 교회 카톡방은 모 형제님 가족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동행에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하필 한국 방문 기간에 형제님의 난방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댁의 동파를 막기 위해 다들 발 벗고 나서준 아름다운 일이 벌어졌죠. 화씨 영하 10도로 내려가는 추운 날씨에 벌어진 참으로 가슴 따뜻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날씨가 추워진다고 침구나 전기 기구들을 나눠주시고 그 외에도 여러 모로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해 받은 한 주였습니다. 로체스터에서 처음 맞이하는 겨울이고 실제로 혹독한 추위이지만 전혀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따뜻함이 긴 여운으로 남습니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는 예전 커피 광고 카피처럼 실제로 가슴이 따뜻한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눈물 겹게 감사로 다가온 한 주였습니다.

종소리는 귓가에 들리기 전까지 종소리가 아니고, 사랑은 느껴지지 전까지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만 하지 않고 직접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지켜보셔야 했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만져지는 (tangible)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것만큼 확실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몸으로 실천하는 사랑이셨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기에 성탄만큼 세상에 사랑이 가득한 날도 없죠. 세계 대전이 벌어질 때도 성탄절 만큼은 휴전을 하며 적과 함께 성탄 캐롤을 부르며 이날을 기념했다고 합니다. 성탄을 통해 우리는 몸으로 표현하는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합니다. 만져지는 사랑말입니다. 신영복 선생님은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발로 행하는 사랑을 피력하셨습니다. 그는 이 뜻을 풀이하며 “관찰보다 애정이, 애정보다 실천이, 실천보다는 입장이 더욱 중요합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은 관계의 최고 형태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에 함께 서보는 것이 입장(立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사랑이 바로 입장의 동일함에서 발로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입장에서 다가 오는 사람들을 통해 참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입장의 동일함입니다. 아기 예수를 생각하며 한 없이 낮아지신 그분의 크신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도 아기 예수처럼 다른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 발 좋은 성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